

남가주장로협 제51대 출범 “섬김의 본 따라 사명 감당”

한경환 장로, "영혼 구원에 최선 다할 것"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5일(주일) 오후 4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거행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제50대 회장 이득표 장로가 이임하고, 제51대 회장으로 한경환 장로가 취임했다. 예배는 부회장 엄광섭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증경회장 정도영 장로의 기도에도 이어 요한복음 13장 13-15절 말씀이 봉독됐다.

설교는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본을 보였노라’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박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본에 대해 얘기하며, “장로는 교회 안팎에서 본을 보이는 자리”라며 겸손과 헌신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이득표 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협력해 준 모든 임원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협의회와 지속적인 연합과 성장을 당부했다.

취임한 한경환 장로는 “부족한 저에게 협의회를 섬김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5일(일) 오후 4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거행됐다. © 기독일보

다. 남가주장로협의회는 반세기 동안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회장들과 선배 장로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협의회가 있다. 남가주교회과도 협력해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우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

회 대표회장)는 축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장로협의회를 지난 반백년 동안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한다”며 “오늘 이 뜻깊은 제51대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 한국장로회총연합회 17개 교단 25만여 명의 장로를 대표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 회기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50대 이득표 회장과 임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의회를 위해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신 노고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취임한 제51대 한경환 회장과 임원진을 향해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임을 믿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며 “남가주 지역 교회와 장로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으로 복음의 가치와 장로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 장로는 “남가주장로협의회가

선배 장로들의 헌신 위에 지역 교회와 연합을 섬기며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품고 교회와 사회를 잇는 믿음의 가교로서 장로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복 목사(남가주교회 회장)는 “장로 직분은 담임목사만큼 중요하다”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고 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씀하고 있으며, 이 헌신은 자자손손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영김 의원(연방 하원)과 지용덕 목사(남가주교회 이사회 부이사장)가 이어 축사를 하고, 남가주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이어졌으며,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교회력과 거룩한 사순절 보내기

인류는 노동과 축제를 위해 달력을 개발했다. 태양력은 해(Sun)를 노동과 축제주기의 기준으로 삼았고, 음력은 달(Moon)을 중심으로 노동과 축제주기의 기준으로 삼았다. 달력은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여 농업과 수렵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로마 시대에는 세금 징수에 활용했다. 달력(calendar)이라는 말은 ‘회계 장부’라는 라틴어 칼렌다리움(calendarium)에서 유래되었다. 로마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세금을 징수했고, 징수내용을 기록한 것을 칼렌다리움이라 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교회력이다. 교회력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 자산이다. 교회력은 교회사를 통해 다듬어진 기독교 신앙문화를 1년의 달력에 반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 그의 사역, 수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과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다. 교회력의 가장 일반적인 쓰임은 교회 절기를 알려준다.

큰 감동을 주지 않는 교과서와 따분한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력과 교회 절기로 신앙인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교회력의 절기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을 돕는다. 대강절은 성

탄하신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게 하고, 사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게 하는 기간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절을 소중히 여겼다. 부활절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절 세례식을 했다. 처음에는 부활절 세례식 준비는 세례 예비자와 영적 후견인이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였고, 점점 온 교회 성도가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초대교회 성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명

상하고 금식과 회개로 세례식을 준비하여 감격 가운데 부활절을 맞았다. 부활절 준비하는 기간이 1세기에는 40시간이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머문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3세기 초에는 부활주일 직전 한 주간을, 3세기 말에는 30일로 연장했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로 연장해 확정했다.

그런데 사순절이 세례 예비 교육 시간을 넘어 성도들의 경건과 영성 훈련, 그리고 참회를 강조하는 사순절로 변모하게 되었다.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ANC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유진소 목사 **막씀집회**

2/27(금)-3/1(주일)
 “아름다운 제자들”
 강사: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첫째날/ 2월 27일(금) 저녁 7: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1-3)
 둘째날/ 2월 28일(토) 새벽 6:00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5:4)
 둘째날/ 2월 28일(토) 저녁 7:00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5:5)
 셋째날/ 3월 1일(주일) 1, 2, 3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마5:13-16)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CRC(북미주개척교회) 소속교회입니다.

Stine Bright

창립 30주년 기념 주요사역들

Feb	창립 30주년 기념 막씀집회 유진소 목사님 초청 막씀집회(2/27-3/1)
Mar	창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새삼을 빚게 비추는 빛'(3/1)
Mar	창립 30주년 기념 컨터타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3/20)
Apr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4/6)
Aug	스톤게이트 찬양집회 '한 여름밤의 금요워십'(8/4)
Sep	온누리 패밀리 캠프 온누리 가족들의 화목 도모를 위한 캠프(9/4-7)
Nov	Korean BBQ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는 추수 감사의 의미(11/20)
Dec	ANCM Christmas 뮤지컬 어린이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 탄생의 의미(12/18)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김태형)
 1996 ★★★★★ 2026

현대극으로 재해석한 신 천로역정, 4월 무대에 오른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부활절 특별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

4월 10일-12일(금-주일)까지 3일에 걸쳐 공연될 '신 천로역정'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극으로,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이 주최하고 주관한다.

은혜한인교회 문화 사역국(담당 김현철 목사, 국장 장순범 장로)은 뮤지컬팀, 더 블레싱팀(3세대 연합 찬양과 무용팀), 영화 제작 및 감상팀, 크리스천 문화예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독/연출을 맡은 김현철 목사(기획/극본/감독)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은혜한인교회의 모든 대형 뮤지컬(10회)과 스킷(약 30여편)을 제작했다. 특별히 2012년-2017년까지 6년간 Musical Eternal Life 시리즈와 2022년 6월 Musical King David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극중극 형식으로, 허무한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세상의 영적 파탄을 그린 <허상의 도시 안의 허영의 시장> 영화(약 6분)가 상영된다.

또한 각 장면마다 LA 다운타운, 글렌데일의 언덕과 숲,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잇는 프리웨이 도로, 등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익숙한 배경으로 관객들에게 현

실감 넘치는 극중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무대 장치(천국의 모형인 '아름다운 집', 거대한 계곡의 바위, 절망 거인 집과 감옥)가 설치된다.

길이는 1시간 40분이며, 주연(11명)과 조연(15명) 총 26명의 배우와 엑스트라(40명) 등 총 약 90명이 공연에 함께한다.

음악부분은 노래가 18곡, BGM이 10곡으로 총 28곡중 25곡이 순수 창작곡이며, 3곡은 찬송가이다. 김현철 목사가 16곡의 가사를 썼으며, Musical King David의 작곡가이며, 이승철의 노래를 작곡한 김유신 집사(버클리 영화

음악 전공)가 16곡을 작곡했다.

안무는 유니스 리 집사(유니스 뮤지컬 무용학원 원장)가 맡았다.

음악 감독으로는 세계선교사 중 함창단과 지저스 힐링교회 지휘자인 임보희 전도사가 함께 하고 있다.

뮤지컬 신 천로역정 티켓은 10달러이며, 20명 이상 단체 관람시 8달러에 판매한다.

한편, 뮤지컬 신 천로역정에 함께할 배우(남녀 각각 1명씩)와 스테프(의상 디자이너, 음향 담당)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문의: 714-446-6200, 714-446-600
주소: 150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글로벌감리교회(GMC), 2026 장로목사회 모임 성료

라스베가스 글로벌감리교회서 정기 모임

글로벌 감리교회(GMC) 한미연회 장로 목사회가 지난 2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교단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했다. 동성결혼 및 성소수자 성직 허용에 반대하며 연합감리교회(UMC)를 떠나 새롭게 출범한 GMC 한미연회 목회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복음과 거룩이라는 교단의 본질을 다시 붙들었다.

이번 모임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를 주제 성구로 삼고, "기억, 갱신, 재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지난 9일 저녁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장로 목사들의 얼굴에는 긴 여정의 피로함보다 서로를 향한 반가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연회와 지방회에서 준비한 밴을 타고 도착한 그들에게 정성이 담긴 저녁 식사와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예배로 시작된 은혜의 여정



글로벌 감리교회가 라스베가스글로벌감리교회에서 2026년 장로 목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 모든 예배는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 선포로 가득했으며,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다시 세웠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을 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다는 결단이 이어졌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서적인 거룩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는 참된 종이 되겠다는 다짐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다. 또한 개척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이어졌다.

정체성을 묻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모은 목회자들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함께 섰다. GMC 한미연회는

정책적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와 복음적 정체성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도전을 나누었다. 류계환 총감리사와의 대화 시간에는 연회 리더십과 현장 목회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연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교제와 연합 속에 깊어진 동역자 의식

일정 중 진행된 지방별 불링대회는 유쾌한 화합의 장이 되었다. 지역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웃고 응원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목회자들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동역자 의식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모임은 여러 교회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풍성하게 치뤄졌다. 라스베가스 글로벌감리교회를 비롯해 뉴저지 디바인교회, 뉴저지 베다니교회,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 로템교회, 샌안토니오 한인감리교회, 소망한인교회, 찰스턴한인교회, 템파한인감리교회 등이 식사와 장학금 등을 후원했다.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해 섬긴 라스베가스 글로벌감리교회의 헌신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현재 GMC 장로 목사회는 회장 이성현 목사를 중심으로 부회장 김영훈 목사, 총무 배혁 목사, 서기 김신한 목사가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 김민선 기자

크리스천 경영 명사, 김진수 장로 초청 세미나

남가주 기독교실업인회 CBMC에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로 잘 알려진 김진수 장로를 초청 크리스찬 경영 명사 초청 세미나를 2월 28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에서 개최한다. 김진수 장로는 IT 서비스 회사이

미지 솔루션즈를 1인 창업으로 NJ 지역에서 시작해 약 18년 동안 경영하며 500명 규모로 성장시켰으며, 현재 캐나다 각섬(GITXM, 회사명 Gitx Mushroom Inc 의 약자) 송이버섯 재배를 통한 BAM(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선교) 분야에 활동 중이다. 기업 활동의 수익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창업가 정신과 경영을 통해 선교가 제한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을 돕는 방식으로 선

교하고 있다. 이번 기독교실업인회 CBMC 세미나를 주최하는 K Town 오현근 지회장은 "기독교실업인회 CBMC의 비전과 미션과 잘 연결되는 명사를 초청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213.265.8669 또는 mcc3694@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남가주에서 비즈니스하며,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실현하기 - 일터는 하나님 사역의 현장-

창업하여 회사 를 운영하고있는 경영자 출신으로 세기 경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문의 : 오현근 K Town지회 213,265,8669

날짜 : 2, 28토 11:00A.M.~11:00 P.M.(세미나 / 필의음담 / 식사)
장소 : 미주복음방송 권개동 75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주최 : CBMC 남가주연말회
주관 : CBMC, K TOWN 지회 (남가주지회, 부에나라지회 공동 주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건전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교회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2026년 2월 22일(주일) 오후 4시

1060 Crenshaw Blvd 2층, Los Angeles, CA 90019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누가 다음 세대를 이단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한인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2회 미주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에스라 김 목사(파이널리프리 대표, 미주바이블백신센터)가 최근 급성장 중인 이단 단체들의 실태를 경고한 가운데,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교회역사 교수)가 이단 피해 사례와 사회적 대응, 이단의 특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갔다.

탁지일 교수는 2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길교회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파이널리프리 국제선교회, 기독교일보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오전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이단들의 활동 양상이 크게 변했다”며, 온라인 콘텐츠 고퀄리티화와 위장 행사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 은밀히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단 피해 가족의 장기적 고충과 공권력의 한계, 그리고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회학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LA 근교에서 급성장 중인 5F Church(사도 Kathryn Krick 담임)도 언급했다. Kathryn Krick은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한국 내 팔로워도 늘고 있다.

에스라 김 목사는 박진영 씨와의 공개 질의응답을 인용하며 “삼위일체를 성경에 없는 표현이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생각과 목적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성령은 인간의 무의식을, 아들은 인간의 의식을 끌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통 기독교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단 피해 사례와 공권력의 한계



기쁜소식선교회 유관기관이 개최한 행사. ©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IYF, 국제청소년연합)

이날 분강의에 앞서, 에스라 김 목사는 LA 지역을 중심으로 이단 단체들이 한인 크리스천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얼마나 한인교회와 남가주 사회 속에 깊이 파고들어 오고 있는지 조명했다.

신천지는 LA(옌지파)를 중심으로 뉴욕·텍사스·워싱턴 DC 등에서 활발히 포교 중이다. 최근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동급으로 묘사하는 공개 행사를 LA 다운타운에서 개최하는 등 위장 평화단체 활동을 통해 지방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 알바인 시장과 LA 시장이 신천지 관련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석한 사진·영상이 SNS에 공개된 사례도 소개됐다.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며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미국 내에서는 100개 이상의 교회와 대형 건물을 보유하고 공격적 포교를 벌이고 있다. 에스라 김 목사는 “1대 교주 사망 후 2대 지도 체제로 급성장한 점에서 종교사

탁지일 교수는 세미나에서 현대 종교 취체 사례를 바탕으로 이단 피해 가족의 실상을 공유했다.

그는 “10여 년 전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가출한 한 아버지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제 장성한 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성인 피해자가 자발적 선택을 주장하면 법적으로 가족 단절이 합법화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사회적 이슈화나 언론 노출을 통해 일시적 회복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단 문제는 뜨거운 감자

탁지일 교수는 이단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비유하며, “교회가 이단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도들의 오해와 교회의 정결성 상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구원파 연루 논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점,

2022년 아베 신조 총리 피살 사건(통일교 유착 배경), 최근 신천지·통일교의 정치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단 문제는 교회의 정결성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단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에 빠지고 싶어 빠진 사람은 없다. 가정환경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2차 가해”라며, 넷플릭스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를 인용해 “생존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곳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단에 빠지는 유형은 없으며, 학력이나 상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초기 정명석 추종자 중 서울대·육사 출신이 많았고, 이단 교주들은 못 배운 경우가 많지만 멤버 2등은 고학력자”라고 덧붙였다.

이단의 공통 특징과 대응 전략

탁지일 교수는 산타바바라 대학교 종교연구소의 ‘Five P’ 기준을 소개하며 이단 판별의 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Prophet : 교주 신격화
- Promise : 비성경적 교리 추가
- Plan : 구체적 로드맵(종말론 등)
- Possibility : 위장 활동(봉사·문화·교육)으로 생존성 제고
- Place : 부동산 거점 확보

그는 “코로나 이후 유튜브 쇼츠·네이버 클립 등 고퀄 콘텐츠로 청년층을 공략하는 신종 이단이 급증했다”며, “교회가 바른 복음을 명확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 경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단은 교회사 2000년 내내 존재해왔으나, 지금은 온라인과 위장 활동으로 더 교묘해졌다”며 “목회자들이 Five P 틀로 접근하면 대부분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격암유록: 한국 이단의 뿌리

탁지일 교수는 한국 이단 교주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격암유록을 주목하며, 이 책이 통일교·신천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조선 중기 인물 격암(남사고)의 예언서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6.25전쟁 이후 제작된 위서(가짜 책)”라며, 박태선 전도관에서 발견된 후 불태워졌으나 국회도서관



탁지일 교수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이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의 네 가지 예언은 통일교에서 임진왜란·6.25전쟁·일제 강점기를 해석하며 문선명을 재림주로 연결짓고, 신천지에서는 ‘탈금산’을 이만희와 연관짓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가족의 갈등과 재정을 조망하며, “문선명 큰아들 문효진 사망, 부인 폭행·마약 혐의 등으로 탈출 사례가 많고, 한학자 후계자 손주들도 분쟁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의 재정 규모를 강조하며, “미국 캐나다 초밥 레스토랑 8,300곳에 생산 공급(연 5억 달러), 한국 맥콜 음료수 30년간 50억 개 판매 등 기업적 종교”라며, 여의도 파크원 건물 소송처럼 부동산 투자가 정치·경제 유착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단 교리의 ‘벤처마킹과 업그레이드’를 비판하며, “통일교 원리 강령 80%가 김백문의 성적 타락론에서 유래, 정명석 등으로 이어지며 업그레이드된다”고 설명했다. 이단 범죄를 ‘우발에 의한 범죄가 아닌, ‘확실범죄’로 규정하며 종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원 파와



파크원 부지는 원래 통일교재단이 1980년대에 세계선교본부를 짓기 위해 사들인 땅으로 통일주차장 부지로 사용되었다. © 현대중교

종교 범죄의 위험성

탁지일 교수는 구원과 관련 사건을 예로 들어 종교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002년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서 박은수 딸 박은숙이 가해자로 지목돼 25년형 선고. 판결문에 ‘비정상적인 종교 믿음으로 학대 반복’ 명시”라며, “구원과 교리상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죄 처벌 없음’으로 합리화돼 도덕적 불감증 조래”라고 분석했다.

그는 구원과 분파(기쁜소식선교회·생명의말씀선교회)가 아프리카·남미·동남아에서 탐다운 포교(정치인·교육계 유착)로 확장 중이며, IYF·마인드 에듀케이션 등 위장 활동으로 청년층 공략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동아리·해외 봉사 위장, 여권 뺏기·식사 제한 등 피해 사례 많다”며, 교회 주도 광고·링크 공유 주의를 당부했다.

주디 한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창립7주년기념 특별수요집회

HD은혜교회에서는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수요집회를 갖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제: "대속의 사랑" (룻기 4:6-10)

일시 2월25일 (수) 저녁6시

장소 HD은혜교회(김의구 목사)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강사: 유진소 목사 (호산나교회)

INVITATION



HD은혜교회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자

임직감사예배

- 장로 | 김진송
- 안수집사 | 안건영, Andrew Sherman
- 권사 | Liliana Sherman

일시 2026년 3월 8일, 오후 4시

장소 HD은혜교회(김의구 목사)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임직식을 거행하며, 우선 지면으로 모시는 글을 올립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 개강: 3/3(화), 10am-1:40pm, 12주간
- 장소: HD Grace Vision Center (15378 Ramona Ave, Victorville, CA, 92392)
- 등록비: \$100/12weeks

상담
213-568-9063
213-200-8829

“자신부터 세워야 양 떼를 지킨다”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

하버시티에 위치한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남상권 목사)가 2월 15일(주일) 오후 4시,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 명순식 명예장로, 박성우 시무장로, 박은주 권사가 세워졌다.

김성택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된 경배와 찬양에 이어 노승용 장로가 기도하고,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남상권 목사의 사도행전 20장 28절 봉독 후 최훈 목사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훈 목사는, “오늘은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실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자리”라며, 임직의 자리가, “인간적으로 잘 했으니까 세워주기 위해 모인 자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어노인팅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상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이 직분을 지켜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



남가주 어노인팅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거행하고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다.

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던 당일 느낀 두려움과 부담감에 대해 고백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일평생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때 주님의 답변, ‘니가 하나, 내가 하지’가 해답이 되었다.”

이어, 최 목사는 본문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

여 삼가라”(행 20:28)의 ‘자기를 위하여’에 주목했다. 그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나 자신부터 세워야 한다. 그래야 양떼를 잘 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쓴 다음에 어린아이들이나 옆의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해준다. 자기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워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쓰러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이다. 직분자가 기도가 무너지면, 자신의 직분이 위협해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명이 흐려지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설교 이후 서약식, 안수기도, 공포 및 임직패 증여, 김대섭 목사와 함광훈 목사의 권면 및 축사, 명순식 장로 인사 및 광고,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섭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는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장항준 감독)의 실제 인물 ‘엄홍도’라는 사람의 결단을 예로 들며,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전했다.

“몇 주 전에 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씨가 분한 엄홍도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이다. 그는 작은 마을의 촌장이었다.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이 유배 와서 살게 되었는데 시신을 거둔 인물이 엄홍도이다. 세조가 이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엄홍도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시신을 거두서 묻어 주고, 그와 그의 가족은 숨어 살았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흐른 후, 후대 왕들이 그의 공적을 기리며 정승급의 직분을 주어 그의 충직함을 치적해 주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똥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머무르게 될 것을 기대하기에 여러분을 축하해 드린다.”

함광훈 목사(아메리칸 스포츠 유니버시티 부총장)는 “여러분 ‘종남’입니까, ‘종놈’입니까?”라 물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종으로서의 본격적 출발선에 선 직분자들에게, 세가지 권면을 전했다.

“첫째, 끝까지 사명으로 일하라, 둘째,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말라, 셋째,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다.”

권면에 이어 명순식 장로가 “여러분들 저희 장로 권사님들이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것이고 여러분들이 타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모든 임직식 순서는 남상권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조셉 리 기자



우리가교회 예배 처소 이전

2023년 7월 한 가정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가 예배 처소를 올림피아 크랜셔 길로 이전하고 예배 처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감사예배는 오는 2월 22일(주일) 오후 4시이며, 위치는 전 크랜셔 장로교회(현: LA장로교회)의 이전 주소와 같다.

우리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셨고 성도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소: 1060 Crenshaw Blvd #2층, LA CA 90019
문의: 323-610-6989
woorigachurch.la@gmail.com

→ 1면 기사 <사순절>에 이어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목상하는 기간이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시고 온갖 수모, 조롱, 멸시를 당했고 참혹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목상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기가 초대교회의 사순절이었다.

중세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왜곡시킨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극에 달한 파행과 타락으로 종교개혁이 이뤄지고 내 외적인 갱신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주역들이 사순절을 백안시한 것은 다소 아쉽다. 하지만 사순절 전통은 현대교회가 회복

해야 할 영적 자산이다. 목회 현장에서 사순절에 특별 새벽기도나 기도학교, 성령학교를 운영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다. 금년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목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다. 올해 사순절이 경건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경건(Piety)”에는 두 개념이 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 함이다. 둘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감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다. 올해 사순절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닮아 주님 마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도망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2026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치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PROGRAM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프로그램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건강 세미나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성 이대위, 총회에 ‘유신진화론 이단 규정의 건’ 상정

“창조·원죄·구원론 근간 흔드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안성우 목사, 이하 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선호 목사, 이하 이대위)가 올해 제120년차 총회에 ‘유신진화론 이단 규정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기성 이대위는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기성 이대위가 최근 신평교회에서 정책세미나 및 제119-4차 회의를 열고 결의한 내용이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제119년차 총회에서 ‘유신진화론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후 1년 만에 기성 이대위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해 당시에는 연구위원회 신설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이후 이대위가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신학적 검토를 이어가며 교단적 입장을 정리해 왔다.

이대위는 올해 정책 세미나 및 이단·사이비 예방 세미나를 통해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총회본부에서 열린 ‘



지난해 열린 기성 총회 모습.

이단·사이비 예방 세미나에서 김병훈 교수(합신대 석좌)와 김성원 교수(서울신대 조직신학)는 유신진화론이 단순한 창조 해석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 교리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훈 교수 “유신진화론은 창세기 1-2장을 상징·은유로

독립으로써 여섯 날 창조와 아담의 특별 창조를 부정한다”며 “아담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다는 전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성경의 선언(롬 5:12)을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담을 상징적 존재로 만들 경우 원죄의 역사성이 붕

괴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필연성 또한 약화된다”며 “이는 복음의 근간을 허무는 신학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교수도 “유신진화론은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 최초 인류가 아닌 상징적 대표 인물로 해석하며, 죽음을 창조 과정의 필수 요소

로 본다”며 “이러한 해석은 원죄 교리를 약화시키고 구원론의 토대를 흔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말론적 측면에서도 “성결교단이 고백하는 재림과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에 따른 사건”이라며 “역사를 진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유신진화론적 세계관은 이러한 종말 신앙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기성 이대위는 유신진화론이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넘어, 교단의 신앙고백과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성결교단이 성경의 무오성과 창세기 창조 기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신진화론은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이라는 입장이다.

한선호 위원장은 “교단의 복음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종교다원주의, 퀴어신학 등과 함께 유신진화론 역시 신학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구원은 믿지만 통치는 맡기지 않는 신앙 돌아봐야”

미국 뉴저지 참빛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일 서영덕 목사를 제4대 담임목사로 맞았다. 41년의 복음 유산 위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진 가운데서 목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서 목사는 자신의 위임 과정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임을 맞은 소감은?

“한없이 취약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위임의 과정을 돌아보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이었다. 1985년 개척 이후 41년간 이어진 복음 중심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잠언 말씀처럼 주인의 마

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지금까지 목회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다듬으신 부분은 무엇인가?

“겸손과 인내다. 목회 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늘 존재한다. 그때마다 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빚어 가셨다. 사역자는 농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배웠다. 농부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씨를 뿌리고 갈고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수고한다. 열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은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걸어가고 싶다.”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 교

회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는지를 계속 고민했다. 저는 그 이유가 ‘구원은 믿지만 통치는 맡기지 않는 신앙’에 있다고 본다.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는 방향을 잃는다.”

-오늘 교회 현실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의 야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분열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저는 무엇보다 균형을 지키는 목회를 하고 싶다.”

- ‘참빛’이라는 교회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는 존재다. 빛은 직진하지만 통과하는 환경에 따라 굴절돼 보인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이라는 매질을 통과할 때 왜곡될 수 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복음이 희석되면 사람들은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의해 굴절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희석되지 않은 복음의 빛이 지역사회와 선교지까지 비추어지기를 소망한다.”



뉴저지 참빛교회 4대 담임 서영덕 목사 ©뉴저지참빛교회

-앞으로 참빛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워가고 싶은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생명 있는 공동체다. 예배 속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며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참빛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김대원 기자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실드, 클레버케어, 휴마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처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벤처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개척의 해답은 균형에 있다”

김준일 목사(블레싱교회)가 플라워마운드교회에서 열린 2026 달라스 워브릿지 둘째 날 네 번째 강의에서 ‘뉴 밸런스(New Balance)’를 주제로 개척교회 목회 현장에서 체득한 실제적인 목회 철학과 전략을 나눴다. 그는 개척교회 목회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미디어·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목사 © 기독교일보

김 목사는 개척교회 목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재정, 행정, 교육, 예배까지 목회자와 사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특히 다음세대 신앙 교육을 교회 부서에만 맡기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교회 개척 초기 3년 동안 스스로를 ‘교육부 목사’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했다. 다음세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시작돼야 하며, 교회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연령대의 가정은 어느 도시든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블레싱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교육부를 구성했다. 김 목사와 사모, 단 두 명으로 시작한 교육부 사역

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운영됐다. 예배는 울동 찬양으로 시작됐고, 이후에는 두 사람이 스킷(연극)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매주 본문 말씀을 연극으로 풀어내며, 때로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배 중에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했고, 가족과 자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목사는 “이 시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큰 축복이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예배 형식에 대한 어른

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오히려 울동 찬양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아부 사역이 안정된 이후에는 청소년부 사역으로 시선을 확장했다. 처음에는 단 두 명의 유스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청년 사역자를 세우고 중·고등부를 조직하면서 점차 인원이 늘어났다. 이후 사모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고, 영어와 한 국어에 능통한 한 집사가 신학교에 진학한 뒤 유스 전도사로 세워지는 열매도 맺게 됐다. 그 결과 12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고, 30~40대

가정 약 30가정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개척교회는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들어올 때 두려움이 앞선다”며, 그러나 이 연약함을 무기로 바꿀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개척교회에기에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균형으로 ‘미디어 목회’를 제시하며, “앞으로 3년간 미디어 목사로 살겠다”는 또 다른 결단을 나눴다. SNS와 유튜브, 쇼츠 영상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로가 되는 시대 속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모두 직접 운영하며, 설교와 예배 분위기, 교회 사진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쇼츠 영상은 1천에서 많게는 2천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미디어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사역에서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주보 업데이트, 유튜브 계정 관리, 인스타그램 새 게시물 업로드를 꼽았다. 김 목사는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

지만 성실함이 필요하다”며, 목회자만큼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캔바(Canva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교회 홍보와 소통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균형은 ‘예배 중심 목회’였다. 김 목사는 “앞으로 3년간 예배 담당 목사로 살겠다”고 선언하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을 나눴다. 그는 “웃으면서 시작해 울면서 끝나는 예배”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설교 이후 결단의 시간을 찬양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교는 30~35분, 결단의 찬양은 약 15분간 진행되며,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벽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며, 적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일 목사는 “목회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해도 해도 결국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파키스탄 편자브주 아동결혼 금지법 시행...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편자브주에서 아동결혼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가 시행됐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편자브주 주지사는 지난 11일 ‘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Ordinance 2026’에 서명하며 최소 법정 혼인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상향하고, 아동결혼을 비보석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편자브주 전역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례는 주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헌법 제128조 1항에 근거해 공포됐다. 이에 따라 1929년 제정된 기존 ‘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Act’의 주요 조항을 대체하게 됐다. 기존 법은 남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 여성은 16세로 규정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었으나, 새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동일하게 18세로 규정했다. 최소 혼인 연령 18세 통일...아동결혼 비보석 범죄로 규정

새롭게 시행된 편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는 아동결혼을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 형사범죄로 다뤘다. 아동결혼을 체결하거나 이를 주선·조장하는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파키스탄 루피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위반 행위는 인지범이자 비보석, 비합의 범죄로 분류돼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을 집행하는 니카흐 카완(Nikah Khawan)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했다. 18세 미만자의 혼인을 등록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인이 아동과 결혼한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엄격한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결혼으로 인한 동거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법원 전담 심리·90일 내 종결 규정...아동 보호 체계 강화
CDI는 이번 편자브 아동결혼 금지 법은 사건을 세션 법원에서만 전담

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소송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아동결혼을 둘러싼 관행적 묵인과 집행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독교 지도자와 인권 활동가들은 이번 조례를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편자브주 의회 기독교인 의원이자 전 인권·소수자 담당 장관을 지낸 예자즈 알람 아거스틴은 “18세를 남녀 동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아동결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파키스탄 헌법과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의무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계 반발과 사법 판단...향

후 입법 절차 주목

CDI는 편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 제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세력은 이슬람 율법이 현대 법률과 같은 방식의 최소 혼인 연령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정에 반대해 왔다. 헌법 자문기구인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도 과거 유사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4월 라호르 고등법원은 기존 1929년 법에서 여성의 최소 혼인 연령을 16세로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주 정부에 신속한 개정을 명령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입

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종교 자유 옹호 활동을 맡고 있는 한 국제 법률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특히 종교 소수자 미성년 소녀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차별 없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자브 아동결혼 금지 조례는 향후 주 의회가 재소집되면 정식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 강화와 집행 감독 체계 보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최승연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번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폴킴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게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격변의 이란, 그 땅에서 자라나는 복음의 씨앗



돈 쟁크. © hamiltonstrategies.com ©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돈 쟁크의 기고글인 '이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복합적인 환경'(Iran: a complex context where God is growing the Church)을 1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돈 쟁크는 더 타이드(The Tide®) 지역의 총괄 디렉터(Executive Director)로, 2001년부터 이 사역을 섬겨오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수십 년 동안 중동은 국제 전쟁과 내전,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지정학적·이념적 경쟁이 뒤엉킨 갈등의 중심지였다. 끊임없는 충돌과 불안이 이어지며, 이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로 여겨져 왔다.

이란은 흔히 중동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아랍 세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량과 같은 위치에 있다. 또한 독특한 페르시아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공식 언어로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파르시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란은 중동에서 손꼽히는 강국이다. 역내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역·관광을 기반으로 번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국민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위해 의도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구 사회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이란은 이슬람 급진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에 죽음을,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적대 관계가 된 것은 1979

년 이슬람 혁명 이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스라엘과 서구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와 군부 내에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이 일반 이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이란인들은 중동에서 가장 반유대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다. 그것도 상당한 격차를 두고 그렇다.

본래 이란인들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손님을 환대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내의 엄격한 법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도 바로 이란 국민들이다. 급진적인 종교 이데올로기가 기본적인 인권을 대신할 때, 사람들은 집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광범위한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억압적인 정권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혼란의 근원이 왜곡된 하나님 이해에 있다는 사실이다.

점점 더 많은 이란인들이 현재의 신념 체계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문화적 종교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은 영적 갈증의 표현이며, 그 갈증은 오직 복음의 진리로만 채워질 수 있다.

페르시아권 사역에 깊이 관여하는 여러 단체들은 복음이 이미 이란 땅에 뿌리를 내렸으며, 지하 교회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최근 이란 당국은 전국 7만 5천 개 모스크 중 5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21세기 들어 백만 명이 넘는 전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 전반에서 이러한 개종은 이단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처벌을 동반한다. 또한 비무슬림을 죽이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는 '지하드' 사상이 중동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배의 자유, 이슬람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돌로 치는 형벌이나 사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란의 백성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영적 자유뿐 아니라 육체적 자유도 경험하도록 말이 다. 최승연 기자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 “이슬람 폭력 증가·샤리아 도입 우려 속 공포”



이웃에게 모욕을 당하는 기독교 개종자의 모습을 재구성한 사진. ©오픈도어

방글라데시 기독교인들이 최근 이슬람주의 폭력 증가와 샤리아(이슬람 율법) 전국적 도입 가능성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2024년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축출된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시나는 15년간 방글라데시를 통치했으며, 그의 정부는 권위주의 강화와 부패·정실주의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슬람주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오는 2월 12일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종교자유 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현재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사실상 현상 유지를 대변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당(BNP)과, 샤리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슬람 정당 연합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이 연합에는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가 핵심 세력으로 포함돼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하시나 전 총리 축

출 이후 기독교인과 힌두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증가했으며,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 더 큰 표적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목회자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하시나가 축출됐을 당시 많은 교회 가 공격을 받거나 파괴됐고,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피해를 입었다. 그 이후 균중 폭력이 증가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공포가 확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며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지 기독교인으로, 이슬람에서 개종한 한 신자는 기독교인들이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아와미연맹(Awami League)의 지지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교회 지도자는 BNP와 이슬람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www.LASarang.com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1세대)을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3부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주요예배(토) 오전 10:00 분당

OMC 중동본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예배(토) 오전 11:30 비전센터
주요예배(토) 오전 11:30 온라인(Online)
주요예배(토) 오전 11:30 교육관 18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교회
라디오서울 AM 1560
주말 아침 6시
주말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토요일 오전 6:30 (토)
토요새벽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2:00
유종교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령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EM 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성령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토)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든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신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령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령집회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우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현장서 복음 전도 확산



IMB 선교사 찰리 위디(가운데 왼쪽)가 폴란드 루지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IMB Photo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태셔널(CDI)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Milano Cortina 2026 Winter Olympics) 현장에서 복음 전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1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CDI는 침례교 매체가 남침례교(Southern Baptists)와 국제선교위원회(IMB) 선교사들이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모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5회 동계올림픽인 밀라노 코르티나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92개국 약 2,9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북부 이탈리아 전역 1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넓은 지리적 범위를 활용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 약 200만 명의 관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이탈리아에서 지속적인 복음 사역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디는 또한 이탈리아가 남침례교 해외 선교 역사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선교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선교 전통 위에서 이번 동계올림픽 복음 전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팬존 공연과 지역 교회 협력... 음악 통한 복음 전파

CDI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음악 사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기반을 둔 예배 단체 '더 록 뮤직(The Rock Music)'은 예수전도단(YWAM) 및 현지 이탈리아 교회들과 협력해 북부 이탈리아에서 공연 사역을 펼쳤다. 이들은 공식 올림픽 팬존과 밀라노, 아르고 등지의 지역 공연장에서 대형 콘서트와 소규모 커피하우스 공연을 병행했다. 음악을 매개로 복음 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활용했으며, 17일간 이어진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국적의 관객과 교류했다.

밀라노 중심 'Who Am I?' 캠페인 전개... 성경·요한복음 소책자 배포

CDI는 남침례교와 IMB 선교팀이 대회 기간 동안 밀라노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밀라노는 로마가톨릭 전통이 깊은 도시로, 두오모 대성당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소장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교팀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시작된 'Who Am I?' 변종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 전략은 정체성,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한 질문이 적힌 대화 카드와 관객의 관심을 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성경과 요한복음 소책자가 배포됐으며, 올림픽 문화 중 하나인 배지 교환 활동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밀라노 중심 'Who Am I?' 캠페인 전개... 성경·요한복음 소책자 배포

CDI는 남침례교와 IMB 선교팀이 대회 기간 동안 밀라노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밀라노는 로마가톨릭 전통이 깊은 도시로, 두오모 대성당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소장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교팀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시작된 'Who Am I?' 변종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 전략은 정체성, 삶의 의미, 목적에 대한 질문이 적힌 대화 카드와 관객의 관심을 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성경과 요한복음 소책자가 배포됐으며, 올림픽 문화 중 하나인 배지 교환 활동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IMB 선교사 찰리 위디는 "이탈리아에서는 좋은 친구와 집,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곧 '좋은 삶'이라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규모 기회"라고 표현하며, 대회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 이어진 복음 사역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종교, 세계관이 교차하는 장이 됐다. 남침례교와 IMB, 그리고 예배 단체들은 이러한 국제적 무대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

선교팀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이탈리아에서의 장기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美 앨라배마주, 예배 방해 최대 중범죄 처벌 법안 검토

미국 앨라배마주 의회가 예배 방해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배를 방해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앨라배마주 하원은 조만간 '하원법안 363호(HB 363)'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고의로"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에 들어가 ▲교회 내부에서 불법 시위·폭동·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예배 참석자를 괴롭히거나 ▲교회 건물이나 부지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예배 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 시에는 C급 중범죄로 기소되며, 최소 5년의 의무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됐다. 당시 여러 명의 시위대가 예배를 방해하며, 해당 교회 목회자 중 한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역 사무소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 항의했다.

CBS 계열 케어(KARE) 보도에 따르면, 한 시위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일부 교인은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그레그 반스(Greg Barnes)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했으며, 최근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스 의원은 앨라배마 폴리텍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교회 예배를 방해하거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예배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앨라배마에서는 교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시티즈 처치(Cities Church)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 이후 발의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공식 기소장에 따르면, 시위대는 "조직적인 집거 공격"을 벌였으며, 여기에는 "압박, 위협, 협박, 업무 방해, 물리적 차단 행위"가 포함됐다고 명시됐다. 기소장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은 예배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 교인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 교회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다른 교인들은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했다. 어린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죽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시위대는 "ICE 나가라(ICE Out!)", "일어나 싸워라(Stand up, fight back!)" 등의 구호를 외치고 휘파람을 불며 큰 소리로 설교를 방해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티즈 처치 시위대의 행동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해당 시위가 예배 장소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법 '진료소 출입 자유 보장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92% “영화·TV 속 신앙 주제 수용” ... 할리우드 통념 흔들어



영화 '소울 온 파이어'에 출연한 배우 윌리엄 메이시. ©Sony Affirm Entertainment

미국 전역의 TV·영화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중 오락물 속 종교적 주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을 틈새시장 또는 위험한 소재로 여겨온 할리우드의 오랜 통념에 도전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시장조사 기관 해리스X(HarrisX)가 '페이스 앤 미디어 이니셔티브(Faith & Media Initiative)'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6 신앙·엔터테인먼트 지수(Faith & Entertainment Index)'는 미국 내 응답자 1만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00개가 넘는 TV 시리즈 및 영화 장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달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소비자의 92%가 화면 속에서 신앙이 표현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답했으며, 77%는 신앙이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폭넓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페이스 앤 미디어 이니셔티브의 브룩 자우그(Brooke Zaugg) 대표는 “큰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결과는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는 정치처럼 이야기하기에 부담스러운 주제로 느껴질 수 있어 소수의 관심사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해 제작자들이 이를 단순화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신앙 이야기는 제대로 다뤄질 경우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앙 주제에 대한 호감도는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Z세대 79%, 밀레니얼 세대 83%, X세대 78%, 베이비붐 세대 72%가 신앙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 82%, 민주당 지지자 75%, 무당층 73%가 지지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각 장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오락적 가치 ▲신앙 표현의 진정성 ▲몰입 가능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연령, 종교, 정치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로 구성됐다. 시청 전에는 비종교인 응답자의 53%가 신앙과 영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이라고 답했으나, 장면 시청 후에는 그 비율이 58%로 상승했다. 또한 신앙 기반 프로그램이 더 공감된다고 답한 비율도 53%에서 61%로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세속적 작품과 신앙 중심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장면을 시청했다. 높은 점수를 받은 장면들은 인물들이 자신의 신념을 진정성 있게 탐구하며, 감정적으로 공감 가능한 맥락 속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상위 평가를 받은 장면 가운데 하나는 HBO 시리즈 '더 피트(The Pitt)'로, 유대인 정체성을 다룬 내용이 다양한 신앙 배경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영 쉘든(Young Sheldon)', '노바디 원츠 디스(Nobody Wants This)', 영화 '핵소 고지(Hacksaw Ridge)' 등의 장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최소 주 1회 이상 TV나 영화를 시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종교 분포는 미국 인구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집단은 추가 표집했다.

이번 연구는 앞서 무비가이드(Movieguide)가 발표한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박스오피스 상위 10위 및 25위 영화 가운데 기독교적·성경적·도덕적·구속적 주제를 강하게 담은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노골적 폭력이나 선정성, 반성경적 세계관을 내세운 영화보다 더 높은 흥행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가이드는 2024년 미국 박스오피스 상위 10위 영화 중 80%가 강하거나 매우 강한 신앙 및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美 일리노이 학군, 기독교 학생 단체 부당 대우 혐의로 소송 당해

미국 일리노이주의 몰린-콜 벨리 학군이 기독교 학생 단체인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을 세속 단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은 10일 일리노이 중부 지방법원 록아일랜드 지부에 제기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학군은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CEF)와 그 산하 굿뉴스클럽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적인 시설 사용료 부과, 학생들에게 배포할 도서 제한, '백팩 나이트' 행사 참여 금지 등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CEF의 웨스트센트럴 지역 책임자인 돈 와셀(Dawn Wassell)은 레이첼 새비지(Rachel Savage) 학군 교육관을 만나 부당 대우 문제를 논의했으나, 새비지 교육관은 “학교 이사회의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셀은 “학군이 CEF를 다른 비종교 단체와 달리 불리하게 대우한 유일한 이

유는 종교적 관점 때문이며, 이는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전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최종 판결 후에는 CEF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위헌적 대우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이 대리한다. 이 단체는 과거 굿뉴스클럽의 공립학교 접근권 소송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리버티카운슬 창립자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가 기독교적 관점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전도 모임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인성 개발을 포함한 성경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굿뉴스 클럽은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린-콜 벨리 학군은 CP의 논평 요청에 대해 “소송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신미셸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미자민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에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 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 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다니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베베(민물레슬))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아기레슬)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 (818) 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 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에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 (512) 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2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 323-643-3033 ✉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모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강영안 교수 초청 온라인 컨퍼런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2월 23일 오후 7시(미국 중부시간) 강영안 교수를 초청하여 신간 「공부한다는 것」 출간 기념 북토크를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한다. 이번 북토크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강영안 교수는 기독교 철학자로, 198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칸트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네덜란드 레이든대학교 철학과 전임 강사,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거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벨기에 루뱅대학교 초빙 교수로 레비나스를 연구하였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다.

강영안 교수는 그동안 「믿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등 깊이 있는 사유와 신앙의 접점을 탐구하는 저작들을 발표해 왔다.

이번 신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공부란 무엇이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단순한 학습법을 넘어, 공부라는 행위가 인간의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다룬 저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북토크는 총 세 부분으로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객원교수).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강영안 교수가 직접 신간 「공부한다는 것」의 집필 배경과 핵심 문제의식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성과와 효율 중심의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공부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성을 어떻게 가꾸어 나아가 하는지를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책의 주요 내용을 저자가 직접 요약하며 핵심 논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강영안 교수는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과 성경적 관점을 넘나들며 공부의 의미와 방법을 탐구해 온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참석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칸트,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등 서양

철학자들의 사유와 함께 동양적 학문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공부와 배움의 원리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 기대된다.

세 번째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지적 삶과 학문, 신앙과 공부의 관계 등에 대해 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강영안 교수는 그동안 강연과 세미나에서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모두가 참여 가능한 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일시는 2월 23일(월요일) 오후 7시(미국 중부시간, CST)이며,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링크 <https://us06web.zoom.us/j/9995995995>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질적 수준의 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김민선 기자

가온 갤러리, 브라이언 김·The Story와 함께 다가오는 세대 격려

비영리 단체 '더 스토리(The Story)'와 부에나파크에 있는 '가온 갤러리(Gaon Gallery,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는 지난 15일 '오는 세대 격려'라는 주제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더 스토리의 1호 홍보대사인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모임은 '다가오는 세대'를 격려하고,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가온 갤러리는 부에나파크 지역 비치 블러바드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he Story는 다음 세대와 커뮤니티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바탕으로 본 행사에 동참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문화와 예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함께



가온갤러리가 더 스토리와 협업으로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김을 초청해 다음세대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온 갤러리 박수정 관장(OCSD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은 "가온 갤러리가 미술 전시 공간을 넘어, 이전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가 함께 만나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온 갤러리와 The Story가 함께 추구하는 '예술·문화 거리로의 발전과 오는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안에 긍정적인 문화적 울림을 남겼다.

사순절을 훈련과 실천의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고) 전용대 목사 (자) 정영 교수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로 섬겨주신 전용대 목사님이 지난 2월 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World Share USA는 목사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World Share USA는 사순절 신앙 훈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기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 묵상, 나눔 그리고 선교가 실천되는 2026년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순절 신앙 캠페인을 펼칩니다! 목사님! 성도님!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2026 사순절 캠페인 준비위원장 민경엽 목사님 준비위원 임동

2026 사순절 개요 시작일: 2월 18일~종료일: 4월 4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전쟁 희생 유가족, 전쟁 난민(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시오.
- 월드쉐어 USA** 전쟁과 극한의 추위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공화국 등 극빈지역 아동들과 소망학교에 영적 양육과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26 나눔의 사순절 섬기시는 분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강준민 칼럼

잘 견뎌낸 삶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나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무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의 계절을 배웁니다. 생존하고 성장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홀로 서서 자리를 지키는 고독을 배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든 띄지 않든, 맡겨진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성실함을 배웁니다.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배웁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무가 자신에게 설교자였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내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헤세에게 나무가 설교자였다면, 제게 나무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관해 쓴 책을 만나면 스승을 만난 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책은 마틴 슐레스케의 《가문비나무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름다운 울림을 선물하는 바이올린

을 만드는 가문비나무(spruce)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지대에 빼곡히 자라는 나무들은 바이올린 제작자에게 가히 은총입니다. 이런 곳에 곧추선 가문비나무는 아주 위쪽에만 가지가 나 있습니다. 밑동에서부터 40-50미터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곧게 뻗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나무와 견줄 수 없습니다. ...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나무에게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는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마틴 슐레스케, 『가문비나무의 노래』, 니케북스, 17쪽)

아름다운 소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낸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적절한 온도와 수분, 그리고 토양이 필요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란 기후 조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나무가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운 경계선을 말합니다. 고도가 높아지거나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강풍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무는 살아남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견디며 살아남은 나무는 작고 기이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들은 바람에

눌려 마치 무릎 꿇은 듯한 모습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이 ‘무릎 꿇은 나무’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면을 단단히 키웠기에,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뛰어난 고가의 바이올린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도 바로 이러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울림과 공명을 위해서는 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인내에서 태어납니다. 마틴 슐레스케는 고지대 가문비나무를 통해 세 가지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첫째, 견딤의 지혜입니다. 견딤이 없이는 쓰임이 없습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 결정합니다. 바이올린 재료로 쓰이는 가문비나무는 200-300년을 견디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 주는 나무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저항력을 키우고, 세포는 진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따뜻한 곳에서 빨리 자란 나무는 저항력이 약해 깊은 공명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둘째, 비움의 지혜입니다. 가문비나무는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쳐냅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태어납니다. 가문비나무는 비움 것을 철저히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옳지 않은 것과 이별하라고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압니다. 비움 것을 비움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힘을 다 쓴다는 것이 언제나 지혜

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고 다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울림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3). 슐레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울림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셋째, 헌신의 지혜입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때가 되면 자신을 내어줍니다. 나무가 장인(匠人)의 손에 들어가면 깎이고 다듬어져 바이올린으로 울리게 됩니다. 살아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울림이 퍼져 나옵니다. 쉽게 얻은 나무로는 깊은 울림이 있는 악기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을 울리는 바이올린은 견딤 속에서 태어나고, 비움과 헌신을 통해 완성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기는 인생을 위해서는 가문비나무처럼 견디고, 비우고, 헌신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울림을 선물해 주십시오. 울림 있는 인생은 크지 않아도 깊고, 빠르지 않아도 오래 납니다. 좋은 악기는 연주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던 자리를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울림이 있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나무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유철 칼럼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어릴 때는 불장난을 하면 혼이 났습니다. 불은 무서운 파괴력과 힘이 있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나 깨나 불조심’이란 표어를 외웁니다. 그러다보니 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또 불은 쉽게 아무나 함부로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에서 성소의 불은 제사장만이 관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

와 앞에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열망은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 물론 예수님의 불은 세상 불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불은 비대칭능력의 불입니다. 이 불이 붙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영접하여 누리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님을 영접하여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육체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또 다른”의 헬

라어 ‘알로스’는 ‘성질과 기능이 똑 같은 것 중에 다른 하나’라는 뜻이며, “보혜사”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 자, 변호사, 상담자, 옹호인,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사랑과 성품으로 나를 돕기 위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행2:3-4) 하나님 나라를 이룬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한 성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이 뜨겁습니다. 불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고 빛이 있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나를

괴롭히는 죄들을 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불은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꽃은 언제나 위를 향합니다. 미혹과 거짓의 시대에는 가짜가 난무하지만,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세속적인 쾌락이나 자기 이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불은 옆으로 번져가듯이 성령의 역사도 나와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있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전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며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6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Includes logos and details for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University,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144명의 여왕 (4인1조)
2026 최고의 전미주 **조선우먼'S**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아마추어 Golfer only)

비즈니스의
튼튼한 파트너,

cbb Bank 와

함께하는

제 1회 전 미주 **조선우먼'S** 골프대회



Strawberry Farms Golf Club

11 Strawberry Farms Rd., Irvine, CA 92612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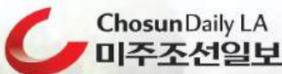


- ▶ 접수 오전 9시30분부터
- ▶ 티오프 12:30 PM - Shotgun Start
- ▶ 참가비 \$185 (1인), \$740 (4인/팀당)
- ▶ 참가인원 총 144명(4인 1조)
- ▶ 부문 단체 대항전, 개인전 (일반부, 시니어부)
- ▶ 경기방식 개인 (Stroke Play)
- ▶ 조편성 단체 (상위 성적 3인의 스트로크 합산)
- ▶ 시상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챔피언 그린 재킷 시상식 포함)
 - 개인 메달리스트 (일반/시니어) 트로피와 부상
 - 단체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와 부상
 - 홀인원상 (2개 홀) 현금 2만불 (2개 홀 각 1만불씩)
 - 니어리스트 및 롱기스트 상패 및 부상
- ▶ 운영 프로헤드 및 전문 운영요원 배치 (USGA 및 로컬 룰 적용)

접수문의

(213)365-6800 | (213)315-5177 (박상신 본부장) - 접수마감임박 -
4221 Wilshire Blvd., #224, L.A., CA 90010 • E-mail : chosunla25@gmail.com

주최



*본 광고에 사용된 인물 이미지는 Chat GPT AI로 제작된 가상 모델입니다. The person shown is a virtual model created using Chat GPT AI technology.

*Getty Image Bank 광고용 이미지



- 상품 -

- 개인 및 단체 우승 및 준우승 수상자들에게 \$3,000 지급
- 개인 및 단체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 수여
- 한국왕복 항공권, 골프채 및 골프용품, 호텔숙박권, 마켓쿠폰, 식당쿠폰, 화장품, 생활용품 등
- 미주조선일보 전자신문 무료구독권 (참가자 전원)

후원업체



※ 라운드 종료 후, 클럽하우스 연회장에서 시상식 및 고급만찬, 최대의 풍성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강태광 칼럼

금육에 치중한 중세 사순절 부작용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4세기의 교회는 급성장하였다. 그때 교회는 몰려온 성도의 양육을 위해 사순절을 경건과 성숙의 훈련 기간으로 정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사순절에 금식과 금육을 강조하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 중세교회가 사순절 금육과 고행을 강조하려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였는데 중세교회의 부패와 신학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주님 고난을 목상하도록 사순절을 설계했지만, 주님보다는 사람의 행위에 집중했다. 성도들은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생겼고, 로마교회는 사순절 금육을 성도의 통제와 교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다. 교회가 수많은 규율을 정하여 금육을 강요했다. 사순절 금육 규정에 신학적 논리가 빈약하고 성도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기상천외한 파행이 속출했다.

사순절 금육 관련 파행이 많았다. 수도사들조차도 교회 금육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육고기는 금지되고 생선이 허용되자 일부 수도사들은 사슴, 닭, 소고기 등을 수도원 우물에 던져 넣었다. 그들은 물 밑에 있는 것들을 모두 '어류'로 분류하는 것을 악용해서 각종 동물 고기를 우물에 던진 후 물 밑에서 건진 '어류'라며 먹었다고 한다. 실소가 절로 나온다.

사순절 금식 규정 때문에 새로운 음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독일의 '만두'라는 마을 타센(Maultaschen)이라는 음식의 출생 비화가 흥미롭다. 마을타센은 독일 마을브론에 있는 치즈타치엔저 수도원 수도사들이 만든 음식이다. 이는 고기를 잘게 다져 시금치와 다른 채소와 함께 버무려 얇은 밀가루 피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중세 수도원에서 사순절에 고기를 먹기위해 개발된 눈속임 음식이었다. 이렇게 발달된 마을타센은 현재 독일의 국민 음식이 되었다.

또 어느 수도원에서는 새끼 돼지를 구워서 십자가에 매단 뒤 "나는 너를 잉어로 명명하노라."라고 축성을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다. 이 역시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먹지 못한 수도사들의 속임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늘 이런 속임수가 통했던 것은 아니다. 바로크 시대의 한 수도원에는 '사순절 기간 육류를 (생선이라 여기고) 먹기 위해서 새끼 돼지를 수도원 우물에 던지는 행

위를 금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수도원 수도사의 파행은 중세교회 사순절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순절이 성도들에게 경건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심과 교회법을 어기는 시기로 변질되어 버렸다. 주님을 닮으려고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 고난 십자가를 묵상케 했는데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카니발의 발전은 금육 사순절의 또 다른 역기능적 부산물이다. 카니발은 사순절 이전 축제다. 사순절 동안의 단식, 금육 등의 절제 생활을 앞두고 그 이전에 먹고 마시며

즐겁게 논다는 의미로 시작됐다. 그러나 카니발은 곧 광란과 타락의 계절로 변질되었다. 금육을 통해 기록해지는 것보다 더 타락하는 사순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사순절 금육은 부작용이 많았다. 애초에 사순절은 경건 훈련 기간이었다. 그런데 타락한 중세교회가 사순절을 악용했다. 그래서 사순절이 성도들에게는 큰 짐이 되었고 성직자와 교황청에게는 교권 확장과 부가적 징수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부패한 중세교회 환경에서 사순절은 점점 타락하였다.



신성욱 칼럼

최가온의 금메달 획득이 주는 깨우침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이상하기 짝이 없는 올림픽이다. 동생과 대화하다가 올림픽 얘기를 했더니, 올림픽이 개최되는 줄도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생뿐 아니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올림픽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12일, 대한민국의 최가온 선수가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연소 금메달(17세 3개월)을 따낸 뉴스가 온 지면을 수놓았다.

최가온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동

계스포츠 실상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따내는 기업을 토했다. 단독 중계를 하는 JTBC가 메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쇼트트랙 경기를 보여주는 바람에, 당시 실시간으로 장한 대한의 딸이 금맥을 캐는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결선 1차 시기에 최가온은 점프 뒤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지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

2차 시기에도 1차 충격의 여파로 넘어지고 말아서 기권하는 거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3차 시기에 도전하여 최고의 연기를 펼쳐며 '롤 모델' 클로이 김(88점)을 제치고 1위(90.25점)에 오르는 극적인 대반전을 일으켰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잠 24:16).

최가온 선수는 바로 그 말씀을 몸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났고, 두

려웠으나 다시 도전했으며, 흔들렸으나 끝내 완주했다. 그 결과는 금메달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몇 번이고 물었다. 나는 실패와 실수로 인해 넘어졌다가 몇 번이나 일어섰는지.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책임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바울에게 면류관은 경기장의 메달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낸 삶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금메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영광일 것이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마 25:21).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좀처럼 웃을 일이 없는 대한민국의 요즘이다. 그러한 때에 17세 여고생의 도전과 역전은 나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메달의 무게

는 단순히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희망의 무게였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자지 않은 채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기쁨은 더욱 컸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딸을 낳아서 잘 길러준 부모님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한 가정의 사랑과 땀이 결국 한 나라의 기쁨으로 이어진 것이다. 최가온의 금빛 질주는 단지 스포츠의 승리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이었다.

최가온이라는 17세 소녀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었다면, 그녀보다 3배 이상의 생을 살아온 나는 조국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전 국민은 둘째 치고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혜택을 누리게 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새롭게 되새겨 본다.

Advertisement for Samsung Shipping (삼성통운) featuring a ship, Statue of Liberty, and Hollywood skyline. Includes contact info: 1-877-580-2424,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Lists services like international moving, local moving, and car shipping.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새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90 days first payment (첫 90일간 납부 유예)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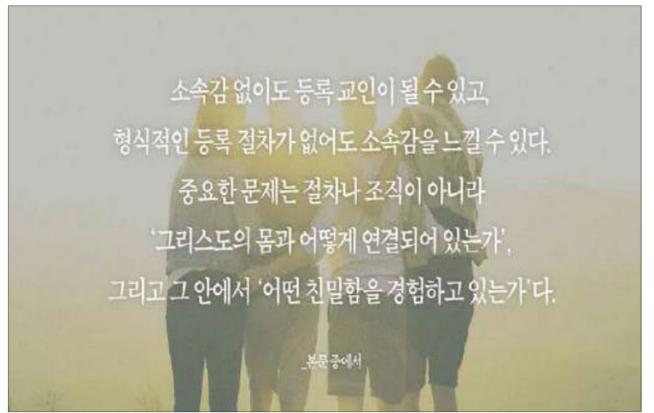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내 안에 거하라’ 교회로 속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말씀은 좋은데, 친밀한 교제가 없어 교회 떠날 것”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소속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에서 실망한 적이 있고, 공동체에 받을 들였다가 상처 입은 이들에게 “교회에 꼭 속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교회에 나가라”고 답하는 책이 아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공동체로 부르시는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다.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소속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에서 실망한 적이 있고, 공동체에 받을 들였다가 상처 입은 이들에게 “교회에 꼭 속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교회에 나가라”고 답하는 책이 아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공동체로 부르시는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다.



소속감: 교회로 속하라

바너버스 파이프 | 구지원 역
생명의말씀사 | 106쪽
12,000원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소속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에서 실망한 적이 있고, 공동체에 받을 들였다가 상처 입은 이들에게 “교회에 꼭 속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교회에 나가라”고 답하는 책이 아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공동체로 부르시는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친밀한 교제권을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마다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헤아려지는 동시에, “자신에게 적합한 교제권을 찾아 교회를 옮기는 것이 소속감을 얻는 유일한 혹은 합당한 방법인가?” 질문이 생긴다.

초창기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 사마리아, 여러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각각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도 똑같이 소속감을 주는 교회를 찾아 방향했을까?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종이 함께 뒤섞여 있던 그 시대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결혼 및 자녀 유무 등을 가지고 친밀한 공감대를 가진 교제 대상을 구분했을까? 바너버스 파이프는 오랜 세월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소속감: 교회로 속하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소속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유명 목사이자 저자인 존 파이프의 아들인 바너버스 파이프는 ‘들어가는 글’에서 2017년 내슈빌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가 고통스러운 이혼과 몇 개월간 새 교회를 찾아 헤매는 어려움에서 어떻게 소속감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짧은 간증을 나눈다. 아버지는 전 세

계적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였지만, 그는 소속감을 갖지 못하며 고립되고 방황하는 성도였다.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의 신앙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을까? 파이프는 성경의 진리와 그 진리를 삶으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회로 속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한다.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구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씀하셨다. 바너버스는 성경에 ‘서로’라는 명령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하면서, 성도가 서로 친밀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려면 적극적으로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로 속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친밀함을 얻으려는 방식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폴 타우치스는 빌 헬이 쓴 <제자를 삼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교회마저 ‘필요’라는 언어와 철학에 현혹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문화 프로그램 편성을 고르듯 잘못된 질문들을 던진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은 세속 심리학 단체에 의해 우리 사회 안에 양산된 매우 자기 숭배적인 폐단을 반영한다”(거짓 심리학 vs 참된 제자양육, 개혁된실천사, 186-187쪽).

라시는 곳에 의해 정의된다(34-35쪽)."

“나의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자들은 결국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참 생명과 깊은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교회 지체로서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는 자가 소속감을 얻는다. 바너버스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한다.

“교회에 진정으로 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리라. 예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으로 기쁘게 자신을 헌신하라. 당신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속감을 갖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달콤하고 깊고 생동감 넘치는 친교를 누리게 될 것이다(155쪽)."

내가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때(공감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맡기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섬기면), 소속감을 얻고 또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바너버스의 책 <소속감>이 교회로 “소속되기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실천적 신앙 회복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나는 여호와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레미야 32: 27

I am the LORD, the God of all mankind.
Is anything too hard for me?
JEREMIAH 32: 27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 세미나

재단법인 세계사랑 선교회(대표 이삼선목사 선교사, WLMF)는 다음과 같이 전도지를 배부하고자 하오니, 영혼구원에 뜻을 갖고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사역자, 선교사, 성도님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점심식사제공, 생명의양식(한,서,영 각1권씩 무료제공) 각종 전도지, 천국과 지옥 간증지, 샘플(무료제공)을 제공합니다.

일시: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대흥장로교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연락처: 213-220-3737(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 스페니쉬 - 전도지 간증지(무료배부)

■ 백 장 미 - 영어 전도지(무료배부)

■ 한,서,영 - 칼라성화 4영리()

■ 한,서,영 - 생명의양식 365일()



재단법인 세계사랑 선교회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미술가들에게 더 잘 알려진 사학자 이석우

미술로 시대 읽은 역사학자 “기독교 미술 이해, 창조 세계 포괄”

역사 흐름 시각화한 것이 미술 시대 역사 상황 거울처럼 비춰 역사, 분명한 선긋기 쉽지 않아 자신의 종교 거리낌없이 드러내 기독교 신앙, 학문과 예술 기초 기독교 미술 현대에 의문 제기도 겸손히 남의 의견 온화하게 경청 신앙 차올라 완숙 성품 표현으로

서양사학을 전공했지만 미술사 저술도 출간하고 한국 작가도 소개하고 작품전도 가졌으며, 만년에는 미술관장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등 미술가들에게 더 잘 알려진 사학자가 있다. 어느 쪽이 본인 분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다.

이석우(1941-2017)의 예술적 소양은 그의 유년시절로 소급된다. 시골 고향집은 그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인큐베이터나 다름없었다. 서산에 연홍빛 석양이 내릴 때쯤이면 수백을 헤아리는 참새 떼가 대숲 위를 날며 군무를 연출했고, 재잘거리는 새소리는 자연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석우는 사랑채 끝 방앗간에서 황토를 짓이겨 그릇이나 소, 말, 사람 얼굴도 만들고 오동나무와 소나무 가지들을 잘라 깎고 다듬는 등의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예술적 감수성은 목포중학교 재학시절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画学校)를 졸업한 미술교사 양수아(1920-1972)를 만나면서 분명해졌

고, ‘양수아 양화연구소’를 출입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꿈은 양수아가 광주로 떠나면서 불발로 그치는 듯했다.

이석우도 경희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미국 애드리안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서양사 코스워크를 마치고 귀국 후 종신대학교에 재직하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미술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은 1985년 『미술세계』에 기고한 스승 양수아 작가론이 시발점이 됐지만, 역사학자로서 미술은 역사 이해에 빼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역사의 흐름을 시각화한 것이 미술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 미술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어 미술과 역사에 분명한 연계선을 긋기는 어렵다. ‘한 시대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예술을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고 한 역사학자 파노프스키의 말에 공감한다(『이석우, 읽고 쓰고 그리다』, 겸재 정선 미술관, 2018).” 이석우의 역사적 관점은 미술 전공자들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 지성인들 중에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소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석우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학문과 예술의 기초로 삼았다.

“나는 미의 근원을 ‘창조주 작품’

에서 구하고 싶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전체로 완벽한 형태를 지니고 질서와 균형,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들이 미적 근원에서 철저히 기획돼 창조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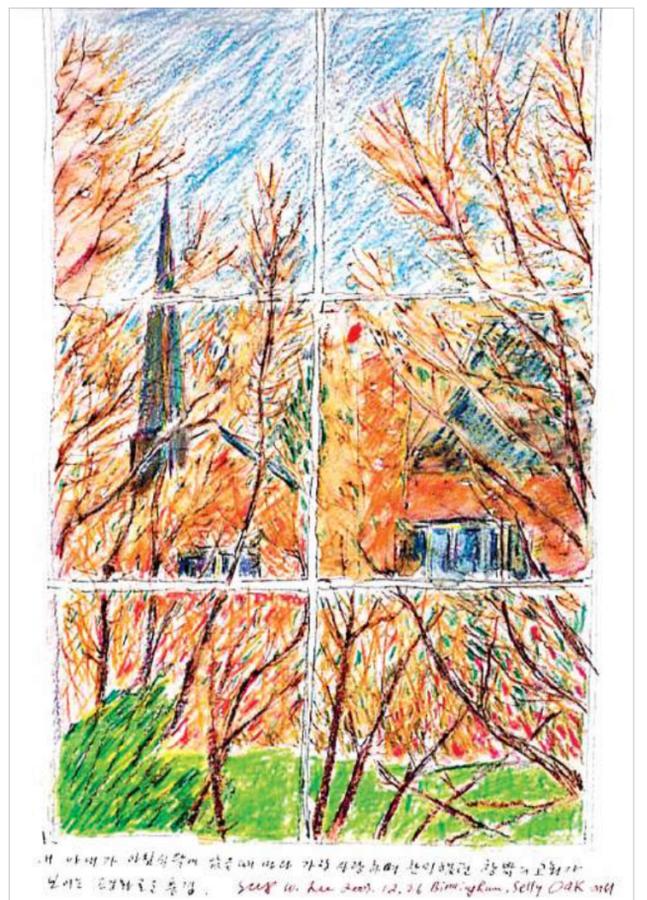
한 잎의 떨어지는 낙엽 속에 피어 오르는 파릇한 생명에, 그리고 저물어가는 붉은 석양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극치이다. 시들은 장미에서도 매마른 검은 겨울의 앙상한 가지지만 남은 고추밭에도, 섬뜩한 곤충들에게조차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이석우, 『역사의 숨소리, 시간의 흔적』, 인디북, 2006, 292쪽).”

기독교 학자가 개인적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연구를 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생 배움과 연구를 실천한 기독교 학자였다. 기독교적 사유 체계를 학문적 근간으로 삼음으로써 미술을 정통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그의 저작들, 가령 『그림, 역사가 쓴 자서전』,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역사의 들길에서 내가 만난 화가들』, 『명화로 만나는 성경』, 『역사의 숨소리, 시간의 흔적』,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보면 그같은 점을 점검할 수 있다.

기독교 미술을 주제로 한 것에서 ‘명화 속에 신앙고백을 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도 있지만, 일반 미술을 논의할 때는 개인이 역사 현장에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에 주목했다. 여기서 미술 작품이란 개인과 사회 간 끊임없는 부딪힘과 대화 과정 속에서 이뤄진 자기 표현이라는 역사학자로서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소개한 작가들은 손상기, 오윤, 최옥경, 박길용, 하인두, 박항섭, 권진규, 박수근, 박생광, 김병기, 양수아, 권순철, 송필용 등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 심지어 민중미술의 작가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가 소개한 작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간성 상실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작가들이었다(‘삶, 구원... 그리고 예술’, 포철신문, 쫓물, 1993년 11월).

저자는 그들을 급변하는 한국 사회 속 한 인간으로서 삶의 성찰과 사색, 그리고 저항의 몸짓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학자답게 예술가가 남긴 매모와 기록들, 지인들의 회고 등 실증적 조사를 근거로 예술가의



▲이석우, ‘창밖의 교회가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종이에 색연필, 33.5x22.5cm, 2003)’.

삶과 예술의 진상을 밝혔다. 만년에는 국민일보 칼럼 ‘이석우 그림산책’에서 국내 기독교 작가들을 소개했다. 그의 기독교 미술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도상의 답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 인물, 십자가를 다룬 단순한 소재주의적 접근을 하는데 이런 소재주의 접근으로는 기독교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을 열고 보면 모두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경건함, 경이로움 등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포함해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명화 속에 신앙고백을 담았습니다’, 『뉴스와워』, 2005, 7.20).”

그는 이렇듯 일상의 경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 계시로서의 자연이 훌륭한 예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미술이 홀대받는 것에 그는 의문을 제기했다. 교회에서조차 기독교 미술이 푸대접을 받거나 단순히 전도의 도구로 삼는 시각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2

계명을 예술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거나 종교개혁 성상 파괴를 시각예술에 대한 의심 내지 거부 구실로 삼는 것을 논박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종교개혁자들이 미술에 반대했던 것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와 과시 등 문제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이 심미안이 부족했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달란트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뚜렷이 했다(이석우, ‘예술과 신앙의 행동인- 화가 목사 이연호: 행적과 그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현대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15, 148쪽).

2017년 이석우 선생이 돌연 세상을 떠나신 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겸손’이란 용어였다. 이석우를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인이 자신을 낮추고 남의 의견을 경청한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말한다.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도 많았다. 신앙의 성숙이 차올라 완숙된 성품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이석우, ‘옥스포드 여정(포스터에 혼합 재료, 41x36cm, 1995)’.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쌍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부목사 청빙!

한인타운에 위치한 예담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지원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3) 추천서 목회자 1명
-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mr.jacob601@hot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 문의: 310-598-0746**

L.A 예담교회
1134 S. Western Ave. Ste B3., Los Angeles, CA 90006

[2026 신년 인터뷰3] “선교는 공간 확장을 넘어, 세대 잇는 수직 선교여야”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2026년 신년을 맞아 미주 기독교 일보는 미주 주요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세대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민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신년 인터뷰는 말씀의 본질, 제자도, 다음 세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 및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연대를 핵심 주제로 진행했다.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 ©기독교일보

세 번째 순서로는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를 만났다. 프라미스교회는 4/14 원도우 운동의 출범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6년간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선교 전략을 세계 현장에서 실천해 왔다. 허목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교회의 1차적 존재 목적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급변하는 세상에 전하여 알리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을 표어로 전도와 선교에 다시 ‘올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교회의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진단하며, 멀티캠퍼스 구조 속에서도 ‘한 교회성(One Church)’을 유지하기 위해 붙드는 원칙과, 4/14 비전의 열매·과제·다음 단계, 그리고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진단과 권면을 함께 나눴다. 다음은 허연행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2026년을 맞아 목사님께서 프라미스교회에 가장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목회적 우선순위를 가지는 무엇이며, 올해 기대하고 계

신 교회의 주요 사역 방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1차적 존재 목적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급변하는 세상에 전하여 알리는 것, 곧 전도와 선교라고 믿습니다. 꺼진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듯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거나 미온적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가 “하나님

의 교회가 선교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유하신다”고 말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수많은 사역 중 하나, 즉 ‘n분의 1’로 전락시킨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교회는 지난 1월 첫 주일 오후 제직 신년례회 자리에서, 지난 50년(희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이라는 표어 아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4/14 원도우 선교 전략의 탄생지로서 지난 16년 동안 다음 세대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역동적인 사역을 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를 1년에 몇 차례 ‘대표선수단’이 다녀오는 방식의 ‘선교하는 교회(mission-doing church)’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우리 각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관점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리포커싱(refocusing)을 주일 강단과 주중 목장 모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은 결국 내가 사는 일상이 선교적으로 바뀌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라미스교회는 뉴욕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의 프라미스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교회의 평가 기준에 커다란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등록교인 숫자, 재정 규모, 교회당 건물과 주차장 수용 능력 같은 물리적 요인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주변 커뮤니티와 세상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이 얼마나 되는가가 김대원 기자[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최근 이란 시위 사태

[이전호에 이어서]

이처럼 신의 이름을 빌린 절대 권력 앞에서는 시민의 정당한 비판조차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의 사형감이 된다.

4. 하킴이아 사상 = 알라의 입법과 통치

위 모든 원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상이 바로 ‘하킴이아(hakimiyyah)’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알라만이 입법자이자 통치자’라는 원칙이다. 급진 원리주의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의 대리자를 필요로 하며, 이에 저항하는 자를 배교자로 판결해 ‘히라바’ 형벌을 가한다.

오늘날 무슬림학자들은 ‘하킴이아(hakimiyyah)’가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적 지주 사예드 쿠티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따라서 이슬람 본연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사상은 꾸란과 하디스의 핵심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판결(통치)은 오직 알라께만 있느니라(꾸란 12:40)”, “실로 알라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판결(통치)하시느니라(꾸란 5:1)”, “너희가 어떤 일에 이견을 보이거든 그 판결은 알라께 있느니라(꾸란 42:10)”.

이 사상은 알라의 절대적 입법권과 통치권을 강조하며, 반대 급부로 인간이 만든 법과 체제를 ‘자힐리야(Jahiliyyah)’, 즉 무지의 산물로 규정하여 거부한다. 따라서 신본주의에 어긋나는 모든 인본주의적 체제는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비무슬림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무슬림과 이슬람 정부까지도 배교자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

신자(Kafir)로 낙인찍어 처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타크피르’라 한다. 타크피르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카피르’로 선언하거나 낙인찍어 처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빵과 자유를 달라는 외침이 ‘신에 대한 반역’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알라가 정한 법이 아닌 인간의 의지를 우선시함으로써, 알라의 유일한 입법권과 통치권을 침해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킴이아 사상은 이슬람 초기부터의 오랜 전통에 근거한다. 무슬림 형제단의 사예드 쿠티가 이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해 책으로 내놓자, 1979년 이란 혁명의 주역 호메이니는 이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해 이란에 보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급진 원리주의 사상이 이란으로 전파됐으며, 지도자를 뜻하는 ‘무르쉬드

(Murshid)’라는 용어나 히틀러식 경례법 등 파시즘적 문화까지 도입됐다. 이러한 사상적·문화적 양분은 오늘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의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이어져 공유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인 하마스가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과거 이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알카에다 단원들을 지원한 것 역시 이러한 사상적 연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 알카에다, IS 등은 결국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통한다(무슬림 형제단과 시아파 파시즘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이슬람의 상자 제48강 - 시아파 파시즘’을 보라).

오늘날 지구상에는 여러 이슬람 급진 원리주의의 그룹들이 존재하며, 전 세계에 위협과 공포를 드리우고 있다. 중도주의(온건주의) 이슬람 그룹은 “급진 원리주의는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이슬람은 오직 ‘평화의 종교’이자 ‘완벽한 종교’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중도주의(온건주의)가 이슬람의 한 모습이듯, 급진 원리주의 역시 이슬람의 엄연한 한 얼굴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과 하디스의 가르침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출현은 역사적 공백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슬람 초·중기에 축적된 여러 가르침과 사건들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인과작용으로서 20세기에 나타난 것이다.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었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 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냥 더 늦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니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셜을 받기 시작했는데 둘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을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아껴서 살면 우리 둘이 못살겠냐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천불씩만 꺼내 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시니까 또 아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고, 여가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일까가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님께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고 자세한 개별 상담을 꼭 해드리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은퇴를 하시면서 금액적으로 충분한 혹은 넉넉한 은퇴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지출을 줄이거나 둘째 인컴을 늘리거나 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더 집중을 하시는데 만약 인컴을 늘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은퇴 인컴이 더 나오면 어떻까요? 지금 선생님의 모기지 금액은 한달에 1,800불이고, 이자율이 2.5%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5% 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물론 그 남은 모기지 전체 27만불을 한번에 다 갚을 수도 있지만, 만약 27만불을 가지고 7% 이상의 이자를 받아 쓰신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1,800불이던 모기지를 페이하면서 천천히 집은 페이오프를 하시고, 나머지 더 큰 이자로 남은 돈으로 인컴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예입니다.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년 \$25,857불이 100세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찾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실인컴 3,750불에 어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더해져서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

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는데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아 나간다고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고정 인컴 어뉴이티는 선생님께서 룬팅 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다 찾아 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빛은 다 갚아 버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겠다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자세를 계산하고 룬팅 포퓰러 상황에서 해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하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는 방법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담을 꼭 도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 자금 30만불을모기지를 전부 페이오프 하여 지출을 줄인 것이지, 아니면 2.5% 모기지론 이자보다 훨씬 많은 7% 정도의 이자를 받아 은퇴인컴을 더 높이고 룬팅케어까지도 준비할 것인지,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KINGDOM ENTREPRENEUR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 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2월 28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기독교 실업인 · B.A.M에 관심 있는 분, 바이오텍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목회자 · 선교사 · 차세대 창업가 40-50대 환영
- 신청마감 : 2월 25일까지 예약 필수 (RSVP)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 문 의 : 714-732-8477 Email: pjkim2000@gmail.com
폴 킴 선교사 (TeloYouth Biotech B.A.M Director / TeloYouth 젊음회복프로그램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자문위원

- 김재중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아인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